

보도 일시	2023. 2. 1.(수) 조간 2023. 1. 31.(화) 11:00	배포 일시	2023. 1. 31.(화) 06:00
담당 부서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남우진 (044-200-5013)
		담당자	사무관 나유성 (044-200-5017)

2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 이달의 수산물·어촌여행지·해양생물·등대·해양유물·무인도서 선정 -

- ①이달의 수산물로 물메기와 꼬막을, ②어촌안심여행지로 경북 울진 구산마을과 충남 태안 용신마을을, ③해양생물로 바다오리를, ④등대로 강원 속초시 설악항 방파제 등대를, ⑤해양유물로 항만근로자 하역장비를, 그리고 ⑥무인도서로 토끼섬을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물메기, 꼬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2월을 맞아 이달의 수산물로 물메기와 꼬막을 선정했다.

추운 겨울날 남해는 겨울철 별미인 물메기잡이가 한창이다. 과거에는 살이 흐물흐물하여 잡혀도 먹지 않았지만, 특유의 시원하고 담백한 맛의 물메기탕이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귀한 수산물이 되었다.

고단백 저지방 식품인 물메기는 주로 겨울철에 탕이나 찜으로 즐겨 먹지만 이번 겨울에는 멸치, 다시마를 끓인 육수에 물메기와 가래떡을 넣어

끓여 담백한 맛이 일품인 물메기 떡국도 즐겨보시길 권한다.

겨울철 꼬막은 살이 차올라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맛이 좋고, 철분과 단백질, 타우린 등이 풍부하여 맛과 영양을 골고루 갖춘 수산물이다.

꼬막은 주로 살짝 데쳐 양념을 얹어 먹거나 전이나 비빔밥으로 먹지만, 데친 꼬막을 야채와 초고추장을 넣어 무쳐 먹으면 새콤달콤하고 쫄깃한 맛이 추운 겨울 떨어진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별미이다. 한편, 이달의 수산물은 매년 수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과 함께 수산물 생산 시기와 소비 촉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매서운 추위가 연일 계속되는 요즘 맛과 영양이 풍부한 물메기와 꼬막으로 겨울철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②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 - 경북 울진 구산마을과 충남 태안 용신마을



구산마을 전경



용신마을 앞 원안해수욕장 전경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송이 우거진 해수욕장이 아름다워 여행을 떠나기 좋은 어촌마을로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충청남도 태안군 용신마을, 두 곳을 2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 선정하였다.

먼저,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는 구산 어촌체험휴양마을은 국가어항인 구산항을 배경으로 2개의 등대와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어촌이다. 마을 앞 구산해수욕장에서 깨끗한 바닷물과 금빛 백사장, 울창하고 곧게

뺨은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멋진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마을에서 5분 거리에 관동팔경 중 하나인 월송정이 있는데 정자에 앉아 바다를 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여행을 즐긴 후 어촌계가 운영하는 공동숙박인 구산 어촌체험마을 펜션에서 휴식을 취해보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울진 특산물인 대게 경매에 직접 참여해 싱싱한 대게를 구매하는 경험도 즐길 수 있다.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용신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체험과 캠핑을 모두 즐기기에 좋은 마을이다. 우선, 썰물 때 드러나는 광활한 갯벌은 모래와 뺨이 섞여 있어 사람이 깊게 빠지지 않아 어린이와 함께 체험하기 좋다. 이곳에서 동죽조개, 바지락 등 수산물을 가득 잡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용신마을 앞 원안 해수욕장에서는 캠핑도 가능한데, 해수욕장 앞으로 맑은 바다가 펼쳐지고 뒤로는 푸른 해송이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휴식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마을 특산물인 꽃게로 만든 게국지 국물을 마시면 겨울철 추위로 움크려진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다.

김원중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봄이 다가오는 2월에 푸른 바다와 곧게 자란 해송이 어우러진 해수욕장이 있는 어촌 여행지를 추천하고자 한다.”라며, “일상에 지친 몸을 체험, 음식, 숙박이 있어 즐길 거리가 가득한 어촌에서 재충전하도록 여행을 떠나보길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③ 이달의 해양생물 - 바다오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월의 해양생물로 바다오리(학명: *Uria aalge*)를 선정하였다.

바다오리는 몸길이 약 38~43cm, 몸무게 약 1kg 내외의 바닷새로, 계절에 따라 깃털 옷을 갈아입는 텃새이다. 특히 여름과 겨울에 얼굴부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여름에는 얼굴과 목 전체가 잿빛의 검은색을 띠며, 겨울에는 눈 뒤로 길게 난 줄을 빼고는 머리 옆면과 목의 앞면이 흰색으로 변한다. 몸통은 전체적으로 등은 검은색을, 가슴과 배는 흰색을 띠며, 겨울에는 날개의 흰색 띠가 뚜렷해진다.



주로 바다생활을 하여 육지에서는 관찰이 힘들며,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11월 초~이듬해 3월 하순)에 동해안 먼바다에서 드물게 관찰된다. 해안의 암반이나 연안 암벽 위에 알을 낳아 집단 번식하는 특징이 있으며, 북태평양·북대서양 무인도서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바다오리는 주로 오징어, 새우 그리고 한류를 따라 이동하는 작은 물고기 등을 먹으며, 먹이 활동 중 그물에 혼획되어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있어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종이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오리 보호를 위해 2016년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으며,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은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국제적 관심대상종인 바다오리가 우리 바다를 방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바다오리와 같은 바닷새들의 서식실태를 조사하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서식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바다오리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달의 등대 - 강원도 속초시 설악항 방파제 등대



해양수산부는 2023년 2월의 등대로 강원도 속초시 설악항에 위치한 '설악항 방파제 등대'를 선정하였다. 이 등대는 매일 밤 4초마다 붉은색 불빛을 깜빡이며 동해안과 설악항 앞바다를 향해하는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7월 처음으로 불을 밝힌 '설악항 방파제 등대'는 선박 안전항해 뿐만 아니라 당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등대 옆면에는 스키점프 도약대, 스키점프 선수 조형물, 동계 올림픽 대표 종목을 그린 벽화 등이 어우러져 생생한 올림픽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속초시의 남쪽 끝에 있는 설악항은 동해 바다를 물들이며 뜨는 붉은 해가 아름다워 매년 많은 사람이 찾는 해맞이 명소이다. 특히 설악해맞이공원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관람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잼버리 기념탑, 인어 연인상 등 30여 점의 다양한 조각상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인근 '설악항활어회센터'는 선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30여 개의 횃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속초 앞바다의 숭어, 가자미, 청어, 게 등 제철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와 특색있는 등대를 소개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월 '이달의 등대'를 선정해 왔다. 지난 1월에는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는 '후포 등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 중 일부를 연말에 선정하여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이달의 해양유물 - 항만근로자 하역장비



1960~1990년대 | 20×58×28.3cm 등 |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기증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이하 인천연수원)에서 기증받은 1960~1990년대 항만근로자들의 하역장비를 선정했다.

인천연수원은 인천항·목포항 등에서 수집한 항만근로자들의 하역장비 40건 103점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기증유물로는 항만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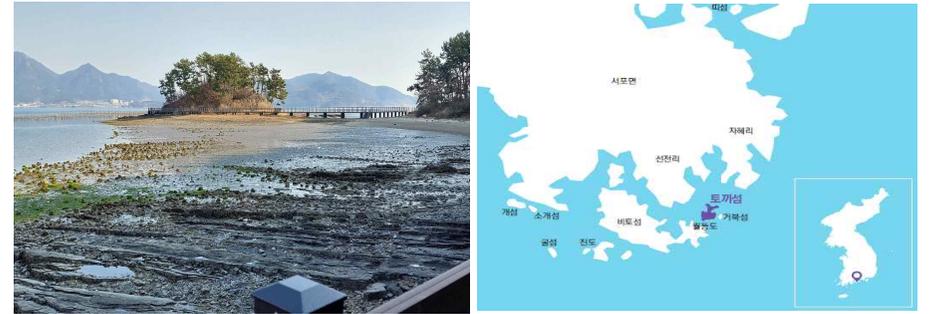
들이 짐을 운반할 때마다 값을 계산하던 짐표, 원목 하역작업시 착용했던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 생선상자 운반용 갈고리, 원목 하역을 위해 발간한 최초의 뗏목교재, 석탄·광석의 운반용 지게, 새우젓통 등 중량물을 옮길 때 사용한 목도 등 다양한 하역물 운반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천연수원은 항만노동의 역사를 국민에게 알리고, 남겨진 유물들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전해달라며 소중한 자료들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해주었다. 이 기증품들은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건립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상설전시실(해양문화실)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항만근로자는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의 짐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는 이들이다. 항만근로자들의 역사는 상업적 해상수송이 대두되면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는 고려~조선시대 수로(水路)를 통한 조운제도(漕運制度)의 체계가 확립되면서 부두에서의 하역작업이 시작되었다. 개항과 함께 국제상업무역이 본격화되면서 개항장은 물동량이 늘고 하역산업이 발달하여 항만근로자들이 급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사라져 가는 해양유물을 수집하여 전국민에게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과거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했던 이들의 자료는 모두 우리 해양의 역사를 보여주는 보물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각종 해양자료를 기증받고 있으며, 2021년부터 매월 1점의 해양유물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달의 해양유물에 소장유물을 소개하거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5232)나 전자우편(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⑥ 이달의 무인도서 - 계묘년(癸卯年), 기운을 가득 담은 무인도 토끼섬



해양수산부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첫 무인도서로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에 위치한 토끼섬을 선정하였다.

토끼섬은 고도 약 20m, 길이 약 120m, 면적 2,975㎡인 섬으로 유인도인 월등도에 인접해 접근이 쉽고 경관탐방·생태체험 등의 장소로 「무인도서법」에 따라 이용가능 무인도서로 관리되고 있다. 토끼섬은 바닥에 납작 웅크린 토끼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토끼와 거북이, 용왕이 등장하는 별주부전의 전설이 서려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토끼섬에는 해안 산책로가 있어 물때와 상관없이 도보로 돌아볼 수 있다. 간조(干潮) 때에는 토끼섬을 포함한 거북섬, 월등도, 비토섬은 하나로 연결되고 만조(滿潮) 때에는 갈라지며, 이 섬들을 연결하는 갯벌에는 많은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토끼섬 앞 갯벌에는 수십 개의 대나무가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데, 바로 대표적 지역 특산물인 서포굴 양식장이다. 서포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영양분이 풍부하고 육질이 쫄깃하고 담백하며 특유의 향이 강해 12월에서 2월까지 영양분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 미식가들이 이 맛을 즐기기 위해 사천을 방문한다.

토끼섬과 주변의 유·무인도서는 아름다운 바다와 드넓게 펼쳐진 갯벌, 싱그러운 자연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천혜의 자연 쉼터로 사계절을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는 관광지이다.



< 비토섬과 월등도, 토끼섬, 거북섬 / 사진 출처 : 경남 사천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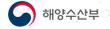
토끼섬을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 (<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대변인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남우진 (044-200-5013)
		담당자	사무관 나유성 (044-200-5017)
<수산물>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김윤이 (044-200-5447)
<어촌마을>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김원중 (044-200-5650)
		담당자	사무관 류지호 (044-200-5651)
<해양생물>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최재용 (044-200-5315)
<등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정준호 (044-200-5870)
		담당자	사무관 조용훈 (044-200-5878)
<해양유물>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용태 (044-200-5220)
		담당자	사무관 우민아 (044-200-5232)
<무인도서>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책임자	과 장 임채호 (044-200-5350)
		담당자	사무관 장민철 (044-200-5355)

참고 1

수산물 성분 분석 정보

2월
이달의 수산물



물메기

Cubed Snailfish



칼슘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고단백 저지방 식품인 물메기는 무, 미나리 등과 함께 끓여 탕으로 먹으면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출처 : 국립수산물연구원 (100g 기준)

열량	수분	지방	단백질
(Calorie)	(Moisture)	(Fat)	(Protein)
78 kcal	81.6 g	0.9 g	16.4 g
회분	칼슘	인	철
(Ash)	(Calcium)	(Phosphorus)	(Iron)
0.1 g	36 mg	137 mg	1.0 mg
니아신	셀레늄	비타민 B1	비타민 B2
(niacin)	(Selenium)	(Thiamin)	(Riboflavin)
2.2 mg	10 ug	0.08 mg	0.08 mg

2월
이달의 수산물



꼬막

Common Cockle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 타우린 등이 풍부한 꼬막은 삶아서 양념에 무쳐먹거나 꼬막된장찌개, 꼬막찜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출처 : 국립수산물과학원 (100g 기준)

열량	수분	지방	단백질
(Calorie)	(Moisture)	(Fat)	(Protein)
63 kcal	82.9 g	0.3 g	12.6 g

회분	칼슘	인	철
(Ash)	(Calcium)	(Phosphorus)	(Iron)
2.6 g	83 mg	136 mg	6.8 mg

니아신	셀레늄	레티놀	타우린
(niacin)	(Selenium)	(Retinol)	(Taurine)
3.4 mg	19 ug	39 ug	1,045 mg

20220101

참고 2

이달의 수산물 포스터

어식백세 · 이달의 수산물

2월

지금 먹어야 더 맛있는
싱싱한 제철 수산물

물메기와 꼬막

이달의 수산물

물메기

겨울철 귀한 수산물 물메기
단백질이 풍부하고 담백한
겨울철 별미! 물메기

꼬막

졸깃한 식감과 영양 가득~ 겨울꼬막!
탱탱하고 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겨울꼬막
몸에 좋은 영양분이 가득!

다시, 건강한!
새로운 국민의 내

이달의 어촌 여행지

2023년 2월



**빨간 등대와 동해가어우러져 풍경이 아름다운
구산어촌체험휴양마을(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은 체험과 숙박, 관광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마을이다. 우선, 울진 특산물인 대게 경매에 직접 참여해 싱싱한 대게를 구매할 수 있는 대게경매체험을 할 수 있다. 어촌계 공동숙박인 구산어촌체험마을펜션에서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인근에는 대동헌, 월송정, 구산해수욕장이 있어 재미는 물론 추억까지 쌓을 수 있다.

체험 : 대게경매체험
먹거리 : 대게
주변 관광지 : 대동헌, 월송정, 구산해수욕장

📍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면신안로 100 ☎ 054-788-5312 🌐 <http://구산어촌체험마을.kr>



**광활한 갯벌과 푸른 해송림을 볼 수 있는
용신어촌체험휴양마을(충청남도 태안군)**

용신마을의 썰물 때에는 드넓은 갯벌을 볼 수 있다. 모래와 벨이 섞여 있어 사람이 쉽게 빠지지 않아 안전하고 동족조개, 바지락을 잡을 수 있는 갯벌체험을 할 수 있다. 해수욕장에서는 해송림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다. 태안의 특산물인 꽃게가 들어간 계국지를 먹으며 여행을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

체험 : 갯벌체험
먹거리 : 꽃게, 계국지
주변 관광지 : 원안해수욕장, 인흥진성,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용도로 470-91 ☎ 041-673-0401 🌐 <http://용신어촌체험마을.kr>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꿈에 걸맞은 주민의 나라

2023. 02
www.koem.go.kr

**지켜주세요!!
이달의 해양생물**

우리가 보호해야 할
바다오리

단장하고 찾아온 겨울손님
 바다오리는 몸길이 약 38~43cm, 몸무게 약 1kg 내외의 크기를 가지며, 계절에 따라 깃털
 곳을 갈아입는 텃새이다. 특히 여름과 겨울에 얼굴 부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여름에는
 얼굴과 목 전체가 잿빛의 검은색을 띠며, 겨울에는 눈 뒤로 짙게 난 줄을 빼고는 머리 옆면과
 목의 앞면이 흰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진다. 몸통은 전체적으로 등은 검은색을, 가슴과 배는
 흰색을 띠며, 겨울에는 날개의 흰색 띠가 뚜렷해진다. 주로 오징어, 새우 그리고 한류물 따라
 이동하는 작은 물고기 등을 먹으며, 먹이 활동 중 그물에 혼획되어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있어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오리의 보호를 위해 2016년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으며,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은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분포 및 생태적 특성
 바다오리는 주로 바다 생활을 하여 육지에서는 관찰이 힘들며,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11월 초~이듬해 3월 하순)에 동해안
 만리도에서 드물게 관찰된다. 해안의 앞바다나 연안 암벽 위에
 알을 낳아 집단 번식하는 특징이 있으며, 부채평양-복대서양
 무인도서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Uria aalge

해양수산부 KOEM
개발원광공단



음 설악항방파제등대

푸른 동해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이루는 청결함을 감상할 수 있는 설악항은 속초시의 남쪽 끝에 있는 항구로 넓은 바다를 즐기기 좋은 해가 아름다워 많은 사람이 찾는 해맞이 명소이다.

설악항 항파제 끝에는 붉은색의 등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바로 설악항방파제등대이다. 이 등대는 2018년 환경부 환경유치유지를 기념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2011년 7월, 최망의 등불을 밝혔다. 4초에 한 번 붉은색 불빛을 반박하며 약 15km 떨어진 해양에서도 볼 수 있어 설악항을 오가는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등대 앞편에는 스키점프 도약대, 스키점프 선수 조형물, 동계 올림픽 대표 동독과 그린 벽화 등이 아우러져 생생한 올림픽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인근 설악해변이공원은 해맞이 관광 장소뿐만 아니라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도 겸할 수 있는 사랑의 땅이고 있으며, 해변의 기념품, 이와 관련된 등 30여 점의 다양한 조각상이 있어 아름다움과 동경과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설악항문화센타'는 선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30여 개의 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조 갈매기의 송아, 가지미, 형어, 게 등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

음 주변 관광지

- 설악해맞이공원
- 바다항가로
- 외옹치해수욕장
- 속초해수욕장
- 아바이마을
- 갯벌
- 청호호유원지
- 설악산국립공원



음 주변 먹거리

명태 / 황태해장국

명태는 겨울이 제철이다. 매년 12월이 되면, 강원도에서는 명태의 배를 길라 내장을 제거하고 덕대에 내린다. 덕장에서 눈과 햇볕, 바람에 의해 말고 녹기를 반박한 명태는 약 4개월 뒤 노르스름하고 포슬포슬한 속살을 자랑하는 황금빛 황태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 황태는 부드러운 면서 풍성한 육질과 깊은 맛이 일품이다. 숙취 해소와 간장해독, 노폐물 제거 등의 효능이 있다. 황태가 되면, 명태일 때에 비해 단백질 함량은 2배로 늘어나, 고단백 식품이 되어 특히 아이노산이 풍부해 건강을 보호하고 간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달의 등대 이벤트
2023. 1. 1. - 12. 31.

1/ 블로그 포스트링 이벤트
포스팅하고 여행경비 지원받자
• 이달의 등대 방문 후기 포스트링 등 우수 포스트링을 선정하여 국내 등대 방문 경비 지원(국민연금공단 후원)을 각 50만 원 상당, 5명 400만 원

2/ 2023 모바일 등대스탬프 투어 요원
스마트폰에 2023 '이달의 등대' 스탬프를 모아보세!
• 등대별로 50만 원에 달하는 소품들을 획득할 때까지 50% 할인 혜택에 각각 소정의 기념품 증정

* 참여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등대마다 홈페이지 및 스탬프 투어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배워요
이달의 해양유물
02
항만 하역장비



1960~1980년대 | 20×58×28.3cm 등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기증

해양유물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리 해양 역사의 소중한 이야기와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양유물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기동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32

기동대방
해양사, 해양교류(대우-청민), 해양역사, 해양민속, 해양과학, 해양산업, 각종 어업-항해도우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자료

2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에서 기증받은 1960~1990년대 항만근로자들의 하역장비를 선정했다.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은 인천항 · 목포항 등 전국 항만에서 수집하여 관리해 오던 1960~1980년대 하역장비 40건 103점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기증유물로는 항만근로자들이 짐을 운반할 때마다 썼을 계산하던 점표(만보, 오만보), 원목 하역작업시 착용했던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 각종 하역용 갈고리, 뗏목 하역을 위해 발간한 최초의 원목작업 교재, 석탄 · 광석의 운반용 지게, 새우젓통 등 중량물을 옮길 때 사용한 북도 등 다양한 하역물 운반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천연수원은 항만노동의 역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남겨진 유물들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전해달라며 소중한 자료들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해주었다.

이 항만 하역장비들은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건립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상설전시실(해양문화실)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근로자들의 물품을 비롯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긴 해양유물을 수집하고 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해양수산부

정유미 서사,
안혜아 그림이 보고

무인도서
2023년 2월
이달의 무인도서

癸卯年
계묘년, 기운을 가득 담은 무인도

토끼섬

영양분이 풍부하고
해삼이 출몰한 서포굴

고도 약 20m, 길이 약 120m,
면적 2,975㎡

섬쪽은 섬안의
드넓게 펼쳐진 갯벌을 느낄 수 있는
산책로가 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첫 무인도서로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비도리에 위치한 토끼섬을 선정하였다.

토끼섬은 고도 약 20m, 길이 약 120m이며, 면적 2,975㎡인 섬으로 바위에 넓적 웅크린 토끼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토끼와 거북이, 용왕이 등장하는 별주부전의 전설이 서려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토끼섬에는 나무데크가 놓여 있어 울해와 상한없이 도보로 돌아볼 수 있다. 섬을 때에는 토끼섬을 포함한 거북섬, 칠동도, 비도섬은 하나로 연결되고 길을 따라가는 길라자며, 이 섬들을 연결하는 갯벌은 천연자원의 보고로 많은 갯벌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토끼섬 앞 갯벌에는 수십 개의 대나무가 보폭하게 울라와 있는데, 비로 대표적 지역 특산물인 서포굴 양식장이다.

서포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영양분이 풍부하고 육질이 쫄깃하고 단백하며, 태두리 부분에 날개바의 개수가 많아서 부드럽다. 특유의 향이 강해 굴 열매 잡아들면 미사가 들은 이 맛을 즐기기 위해 사천을 방문한다. 서포굴은 11월 초에서 이듬해 4월 초순까지 생산되고, 12월에서 2월까지 굴의 영양분이 최고조에 달한다.

또한, 토끼섬과 주변의 유무인도서는 아름다운 바다와 드넓게 펼쳐진 갯벌, 싱그러운 자연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천혜의 자연 생태로 시계절을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는 관광지이다.

토끼섬을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l.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mof.go.kr | <http://blog.nesr.com/sraeanof> | www.facebook.com/mof.oriphotos



경상남도
GYEONGNAM



사천
Sacheon